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0~12/16

불교전문서점 조계종출판사 불교전문서점 향전 제공 02)2031-207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불교성전	불교성전 편찬위원회	조계종출판사
2	불교를 알고 싶어요	돈관스님	동국대학교출판부
3	지장경	광덕 역	불광출판사
4	나도 내 마음을 모를 때 불교심리학	보만	불광출판사
5	눈부신 하루를 시작하는 한마디	법상/용정운	조계종출판사
6	수호신 기도	묘장	민족사
7	육조단경과 마음공부	법상	민족사
8	윤회와 해탈	이중표	불광출판사
9	자비도량참법	운허역/선나원약	운주사
10	홀연히 깨어나는 신심명	원제	불광출판사

불서총판 운주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요가디피카	아헹가/현천 역	선요가
2	가장 행복한 공부	청화 지음	아시아문화커뮤니티
3	입보살행론	샨티데바/석혜능	부다가야
4	스스로 행복하라	법정	샘터사
5	부처님의 당부	비구 보디/등현 감수	사유수
6	업이란 무엇인가	히라오카 사토시/법장	운주사
7	수행초탈인가 치유인가	박찬욱 기획/한자경 편집	운주사
8	한글아함경	고익진 엮음	담마아카데미
9	치유하는 유식읽기	서광스님 강의	공간
10	화:마음의 불꽃을 식히는 지혜	틱낫한/허우서,허주형	운주사

속리산의 글자를 다시 깨우다



속리산 법주사 비문

철운 스님 엮음

금오문도장학회

전 법주사 강주 철운 스님 역작
속리산 비문 직접 기록하고 해석
비명 · 사적기 · 암석 각자 등 57건

여수령 기자 spero0821@hyunbul.com

속리산은 예로부터 '속세[俗]를 떠나는[離] 산'으로 불리며, 자연과 수행이 만나는 한국불교의 대표 성지로 여겨져 왔다. 속리산 자락에 자리 잡은 법주사는 수많은 고승 대덕이 법맥을 이어 오늘날까지 그 수행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 속리산과 법주사 곳곳에 새겨진, 역사를 품은 글자들을 한데 모은 책이 나왔다.

금오문도장학회(회장 도공 스님)가 펴낸 〈속리산 법주사 비문〉은 법주사 인근에 남은 비문과 사적기, 암석 각자 등 57건을 정리해 속리산의 역사와 수행의 숨결을 되살린 기록물이다.

법주사 강주를 역임한 철운 스님은 1998년부터 학인들에게 역대 조사들의 발자취를 올바르게 전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비문 조사에 나섰다. 이후 15년 동안 스님은 수십 개의 암자와 옛 절터, 부도와 비석을 찾아 하나하나 사진으로 촬영하고 틈틈이 번역했다.

특히 스님이 고안한 '분탁(粉拓)' 방식이 눈길을 끈다. 이는 마모된 글자에 밀가루를 뿌려 글씨를 판독하는 것으로, 비석을 두드려야 하는 탁본과 달리 손상의 위험이 적다는 것이 스님의 설명이다.

비석을 찾는 과정에서 무명의 부도 2기를 바로 세우기도 했다. 2010년 속리산 관음봉 아래 옛 대암사 터 부근에서 학인 스님 10여 명과 넘어져 있는 부도를 끌어 올려 원래 자리에 모셨고, 도굴꾼에 의해 윗부분이 땅에 떨어진 또 다른 부도의 부재를 제자리에 맞춰 둔 것.

이렇게 찾아낸 비문 글자들을 정리하고 해석한 내용을 정리해 한 권의 책으로 엮었다. 책에는 법주사 자정국존 비명, 벽암 대사 비명, 동관음사 사적 비명, 수정암 사적비, 당간지주 조성 명문, 암석 각자 등 57건의 글자가 담겨 있다. 판독할 수 있는 한문 원문을 그대로 옮긴 뒤 한글로 해석하고 여기에 철운 스님의 해설과 주요 인물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스님은 현판, 주련, 비문, 바위 글씨 순으로 읽어볼 것을 권한다.



철운 스님.

철운 스님은 "하나의 비석 속에는 수행의 과정과 깨달음의 내용이 있고 시대의 역사가 있고 예술적인 조각이 있고 명문장과 명필이 담겨 있다"며 "비문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할 수 있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번 작업을 하면서 정관 일선 선사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첫 번째 큰 보람이다. 선사는 임진왜란 당시 속리산을 지키며 대중 200여 명의 정진을 지도했다. 사제인 사명 대사가 의승으로 기개를 떨쳤다면 정관 일선 선사는 다른 방법으로 호국불교의 길에 나섰다. 또 하나는 동관음사의 규모와 도의 국사가 개창한 기록을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책 발간과 관련해 법주사 조실 지명 대종사는 "비문은 각각 그 시대의 존경 받는 명문장가들이 기록한다. 글 내용도 좋거니와, 개산 중창 중수 선사님들이 법주사의 맥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다"며 "비문을 읽어 보면 저절로 자신의 해이하고 게으른 수행과 포교의 자세를 뉘우치게 된다. 이 비문 해석집이 후학들에게 큰 발심의 지침서가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책을 펴낸 금오문도장학회장 도공 스님은 간행사에서 "문도 스님과 사부대중이 법주사의 역사와 고승 대덕의 자취를 바르게 이해하는 역할을 하고 학술적 자료로 이용된다면 철운 스님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주사 부도전 전경.



철운 스님과 법주사 승가대학 학인 스님들은 2010년 속리산 관음봉 아래 옛 대암사 터 부근에서 넘어져 있는 부도를 끌어 올려 원래 자리에 모셨다. 사진 제공=철운 스님

새로 나온 책

부처님 가르침 담은 동화·동시 모음집



마음마당
한국불교아동문학회 엮음
대양미디어
1만원

한국불교아동문학회(회장 권영주)가 펴내는 연간집 16집이다. 2025년 제42회 한국불교아동문화상 수상작인 민금순 시인의 동시 '어쩌면, 사랑'과 김일환 작가의 동화 '다리 달린 달리' 요약, 신현득·김종상 시인의 신작 동시, 곽영석 극작가의 '선녀바위와 장자 못' 극본과 박춘근·설용수 작가 등의 수필이 실려 있다.

1982년 설립한 한국불교아동문학회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담은 아동문학을 꾸준히 발표하는 한편, 경전 개작 동화집을 출간하고 있다. 제42회 한국불교아동문학상 및 전국어린이글짓기대회 시상식은 12월 3일 서울 예술가의집에서 열렸다.

본래 마음 안내하는 〈금강경〉 해설서



금강경 직지설법 2
김태완 지음
침묵의 향기
1만6800원

"깨달음이란 건 딴 게 아니고, 허망한 일에서 벗어나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고, 진실이 밝혀져 버리면 세상에 아무 일이 없어요."

김태완 무심선원장의 〈금강경〉 강설집 두 번째 책이다. 저자는 '직지인심(直指人心)'이라는 선불교 정신에 따라 곧바로 우리의 본래 마음을 가리켜 깨달음으로 이끈다. 본래 마음과 존재의 실상에 대해 바르게 알도록 다양한 비유와 설명으로 안내한다.

2권은 '여법수지분'에서 '구경무아분'까지의 해설을 담고 있다.

마지막 3권에는 '일체동관분'에서 '응화비진분'까지 실릴 예정이다.

오늘을 밝히는 366가지 지혜



하루 한 장 부처의 가르침
알루보물레 스마나사라 지음
심지애 옮김 / 시그마북스
1만6800원

스리랑카 상좌부 불교 장로인 저자가 하루 한 편 마음에 새길 수 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가려 엮었다. 〈법구경〉, 〈길상경〉, 〈아나율경〉, 〈자비경〉 등에서 발췌한 구절을 현대인들의 눈높이에 맞게 다듬었다. '병은 기회다', '우울해지는 것도 위험한 분노', '공부만 하다가는 머리가 나빠진다' 등 일상에서 곱씹어 볼 만한 내용이 가득하다. 날짜순으로 정리돼 있지만 언제든 마음 가는 곳을 펼쳐 읽어도 좋다.

저자는 1945년 스리랑카에서 태어나 13세에 출가 득도했다. 일본에서 박사과정을 거친 뒤 현재 일본 테라바다불교협회에서 초기불교 전도와 명상 지도에 힘쓰고 있다.

